

AVENUE L

프리미엄 쇼핑 매거진 에비뉴엘 JULY 2014



Globe-trotting

You Are THE WEATHER

'당신은 날씨다. 오류처럼 보이는 이 문장은 그러나 마땅하게 들린다. 매순간의 나는 날씨에 영향 받고 그것과 관계 맺는다. 이 개념 속에 공간이나 시간, 사람을 대입해도 마찬가지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외부적 요소들로 나 자신이 구성된다. 그러므로 나는 무한한 가변성의 존재다. 극도로 감각적이고 지적인 방식으로 로니 혼은 이 사실을 밝혀낸다.'



로니 혼은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아이슬란드에 천착한 작가다. 20대에 처음 여행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곳의 빛과 날씨, 물의 순환, 풍경이 주는 지적 영감은 그녀를 에워쌌다. 지난 30여 년간 아이슬란드를 배경으로 한 사진, 설치, 조각, 드로잉, 출판물이 그 증명이다.

아메리카 대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땅'인 아이슬란드는 신비롭고 비밀 상적인 풍경을 간직하고 있다. 거대한 바위처럼 굳게 얼어붙은 빙하, 끊임없이 시야를 가리는 안개, 폭발 직전의 화산은 단순히 풍경이 아닌 어떤 이야기의 잠재태 같다. 1996년 아이슬란드의 한 온천에서 포트레이트를 촬영하던 순간 로니 혼은 이 사실을 직감한다.

작가를 바라보고 있는 여성의 몸은 물속에 잠겨 있다. 수면 아래에서 방금 솟아오른 것처럼 얼굴과 머리카락이 젖어 있고 콧볼과 눈썹엔 작은 물방울이 맺혀 있다. 물과 사람의 체온이 만들어낸 수증기로 여성의 주변부는 때로 뿌연다. 불안한 듯 카메라를 응시한 여성의 눈빛에선 묘하고 강렬한 기운이 느껴진다. 피사체와 부연의 대립을 나누며 작가가 연속적으로 촬영한 이미

지들은 여섯 장 혹은 일곱 장씩 그룹핑되어 전시장 벽면에 걸린다. 멀리서 보면 그저 비슷비슷한 사진들의 연속처럼 보인다. 그러나 작품 앞으로 다가가 여성의 모습을 진지하게 관찰하는 순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 작가의 움직임에 따라 순간순간 달라진 앵글 속에서 여성의 표정은 미세하게 움직인다. 온도, 빛, 수증기, 바람 같은 환경적 요소들은 물론 자신에게 개입한 사진가와 카메라라는 물질, 셔터 소리 같은 것들조차 그녀는 느끼고 있다. 당황스러운 건 사진 속의 모든 정보가 관람자에게도 마치 실제처럼 작용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마치 시공간을 초월해 사진 속 여성과 마주한 느낌을 받는다. 그 감정은 극도로 미묘하고 찰나적이지만 긴 여운을 남긴다.

"이 사진을 보는 관객들은 스스로 날씨가 된다. 그것은 직감적으로 보이는 대상과 나의 관계를 설정하기 때문이다. 설정한다는 말조차 사실은 정확하지 않다. 이 과정에는 생각이나 이유가 개입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설정되어질 뿐이다. 그게 바로 날씨다. 우리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떤 표정을 짓게 되는 것, 그것이 날씨고 관계다." 로니 혼은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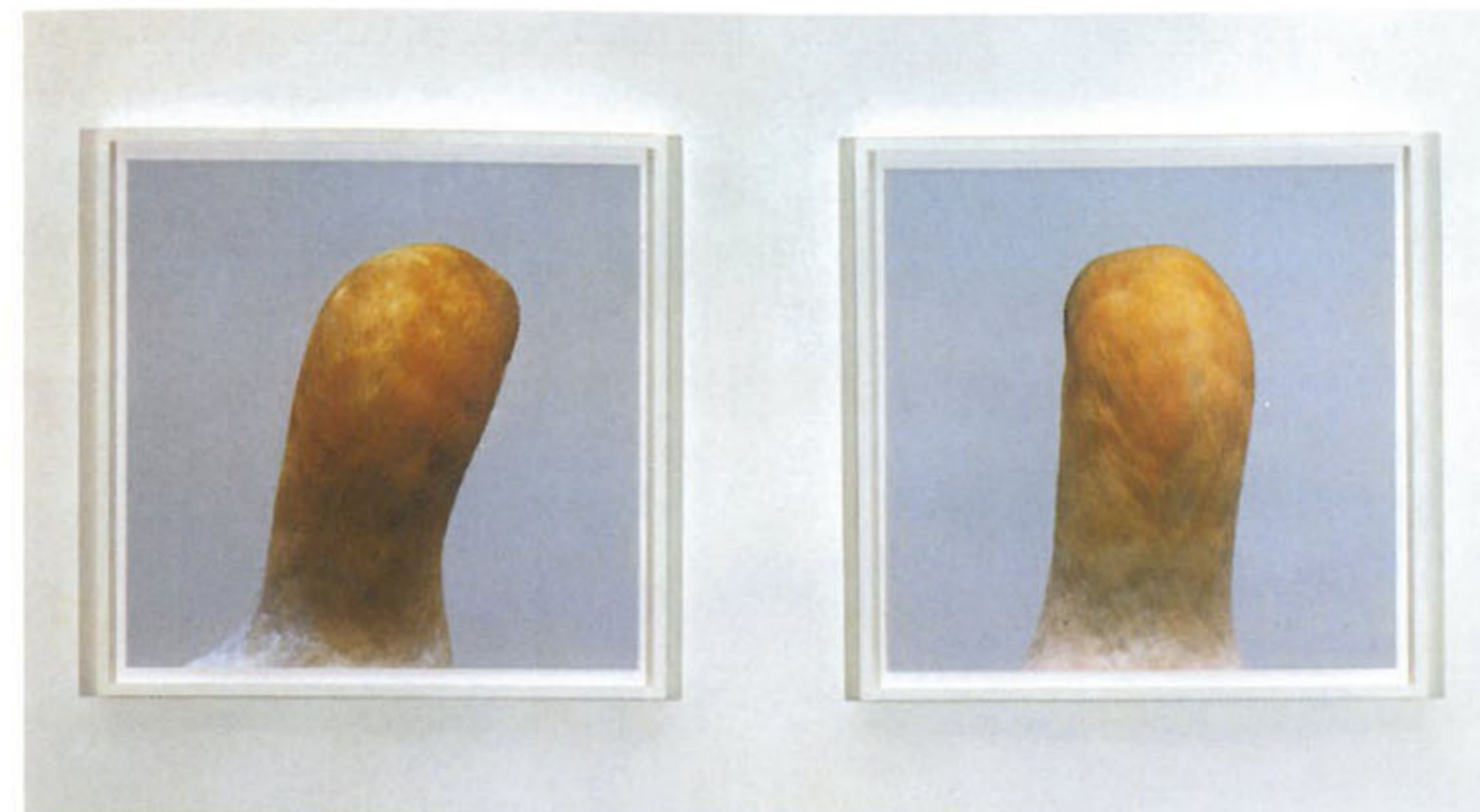
개념미술가 로니 혼
(Roni Horn).

작업을 통해 단순히 아이슬란드의 기후나 지형이 아니라 문화까지도 표현해 낼 수 있다는 걸 직감했다. 물론 작가가 사진을 찍을 때에는 이 작품이 어떤 형태의 결과물이 될 거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You Are The Weather'는 지극히 직관적인 상태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이미지라는 것은 시발점이 될 수 있다. 한 경험의 시발점 혹은 호기심의 시발점. 내 사진은 무언가를 묘사하지 않는다. 한 장의 사진 속에는 단어로 명명하지 않아도 감각적으로 얻어지는 경험들이 있다. 나는 그것을 포착하는 데 집중한다." 영어에는 너무나 느껴지는 것, 가만히 있어도 피해갈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느껴지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있다. 또 흔히 날씨(weather)는 단순히 비나 눈 같은 자연 현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심리적 등가물, 즉 그것에 따른 정신적인 컨디션까지도 포함한다. 로니 혼은 아이슬란드에 가면 날씨의 냄새

와 맛까지도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스스로 온전히 그곳에 '존재하고 있음'(being there)을 깨닫는다는 뜻이다. 어디에 있든 그 순간, 그 공간에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것. 작가가 'You Are The Weather'를 통해 관객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직 그것이다.

풍경은 시간의 함수다

로니 혼의 작업은 극도로 미니멀한 형식을 취한다. 먼저 한 점 올라앉을 틈 없이 섬세하고 간결하고 아름답다. 여러 가지 형태와 크기로 제작된 유리 조각도 마찬가지다. 누군가는 이 작품을 두고 아이슬란드의 온천탕을 축소해 놓은 것 같다고 표현했다. 자연이 부여한 투명성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은유적으로 한 말일 것이다. 사실 이 작품은 유리를 녹여 액체 상



짝으로 이루어진 새 작품.

태로 만든 다음 거대한 틀 속에 붓고 천천히 식힌 것이다. 그 결과 신기루처럼 빛나면서 파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완성되었다. 어느 별 좋은 날 사색하듯 천천히 이 작품을 관찰하고 나면 그것이 참으로 신비한 생명체라는 걸 느낄 수 있다. 광택이 나는 물체의 윗표면은 타원형을 그리며 움푹 패어 있다. 마치 젤리의 표면처럼 부드럽고 투명하다. 원형의 테두리는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 완만한 곡선을 이루었다가 짧게 변하기도 한다. 변화무쌍한 선들은 작품의 실체가 액체였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해가 구름 뒤로 가려지거나 다시 나올 때 유리 조각은 또 다른 모습을 드러낸다. 밝아졌다가 어두워지기를 반복하면서 미세한 색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풍경은 시간의 함수'라는 철학적 명제가 떠오르는 장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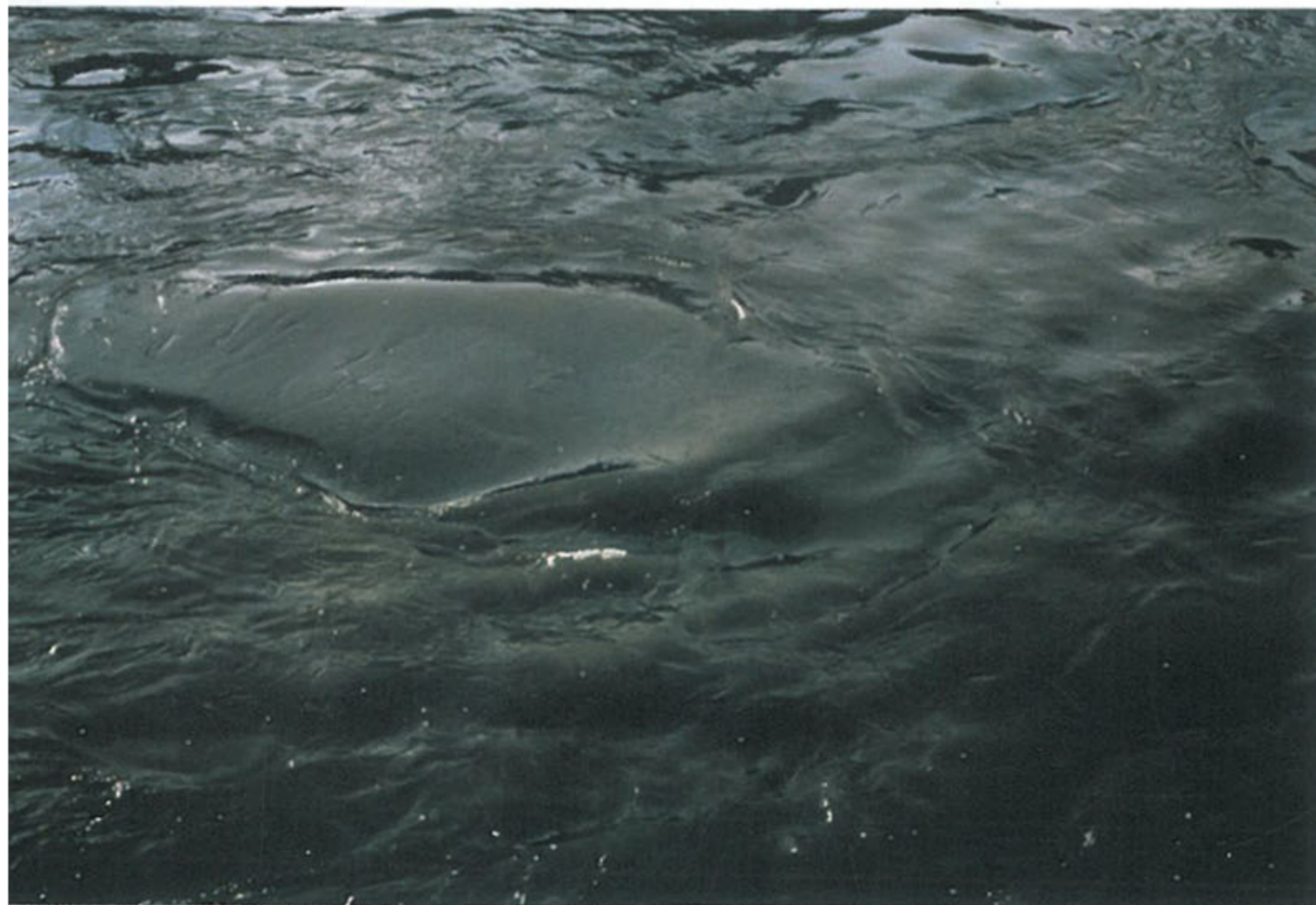
로니 혼은 1975년도에 처음 아이슬란드를 방문하고 몇 년 뒤 다시 그곳에서 한 달간 머무르는 여행을 한다. 광활한 풍경 속에서 고독한 시간을 보낸 경험은 오랜 시간 그녀의 인생과 작품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그곳의 물은 무한한 영감을 주었다. 작가가 아이슬란드를 주제로 선보인 최초의 작품 역시 빙하 지역에서 채취한 물을 전시한 것이다. 그 후로도 온천을 비롯해 맑은 물, 흐린 물, 진한 흙탕물까지 불투명함 아래로 깊이를 감춘 자연 현상에 작가는 몰입했다. 감각과 관능, 관계 맺기, 낯선 경험들. 로니 혼의 예술은 이처럼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단순한 이해를 넘어선 것이다. 어느 비평가는 그의 작품을 작가만이 이해할 수 있는 세계라고 정의한다. 두 점의 박제된 새 사진 역시 그 경계에 놓여 있다. 우리는 이 작품을 보면서 둘 사이에 다른 점이 무엇인지 찾게 된다. 좌우로 시선을 옮겨가며 이미지에 빠져들지만 어떤 것도 정확하게 파악해내기는 힘들다. 짝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에는 항상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고, 보이는 쪽과 보이지 않는 쪽이 있다. 이같은 현상을 흔히 시주 지표(Cix Pax)라 한다. 나란히 있는, 차례대로 있는, 짝이 짝을 따르는, 차이와 경쟁의 관계... 변화하는 의식의 흐름 속에서 대상은 어떤 확실함도 지닐 수 없다. 상대적인 동일성과 차이만이 존재할 뿐이다. 결국 모든 것은 마음의 눈 속에 있다.

박제된 새 사진 두 점이 나란히 걸려 있다. 그 둘 사이에 다른 점이 무엇인지 찾게 된다. 짝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에는 항상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고, 보이는 쪽과 보이지 않는 쪽이 있다. 변화하는 의식의 흐름 속에서 대상은 어떤 확실함도 지닐 수 없다. 단지 상대적인 동일성과 차이만이 존재할 뿐이다. 결국 모든 것은 마음의 눈 속에 있다.



국제갤러리 3관에 전시된 유리 조각 작품 중 일부.

세계의 근간을 이루는 소재인 물은
어떻게든 변할 수 있는 무한한 가변성을
지니고 있다. 인간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는
박제된 새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끊임없이 흐르는 상태에 놓여 있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그것이 바로 삶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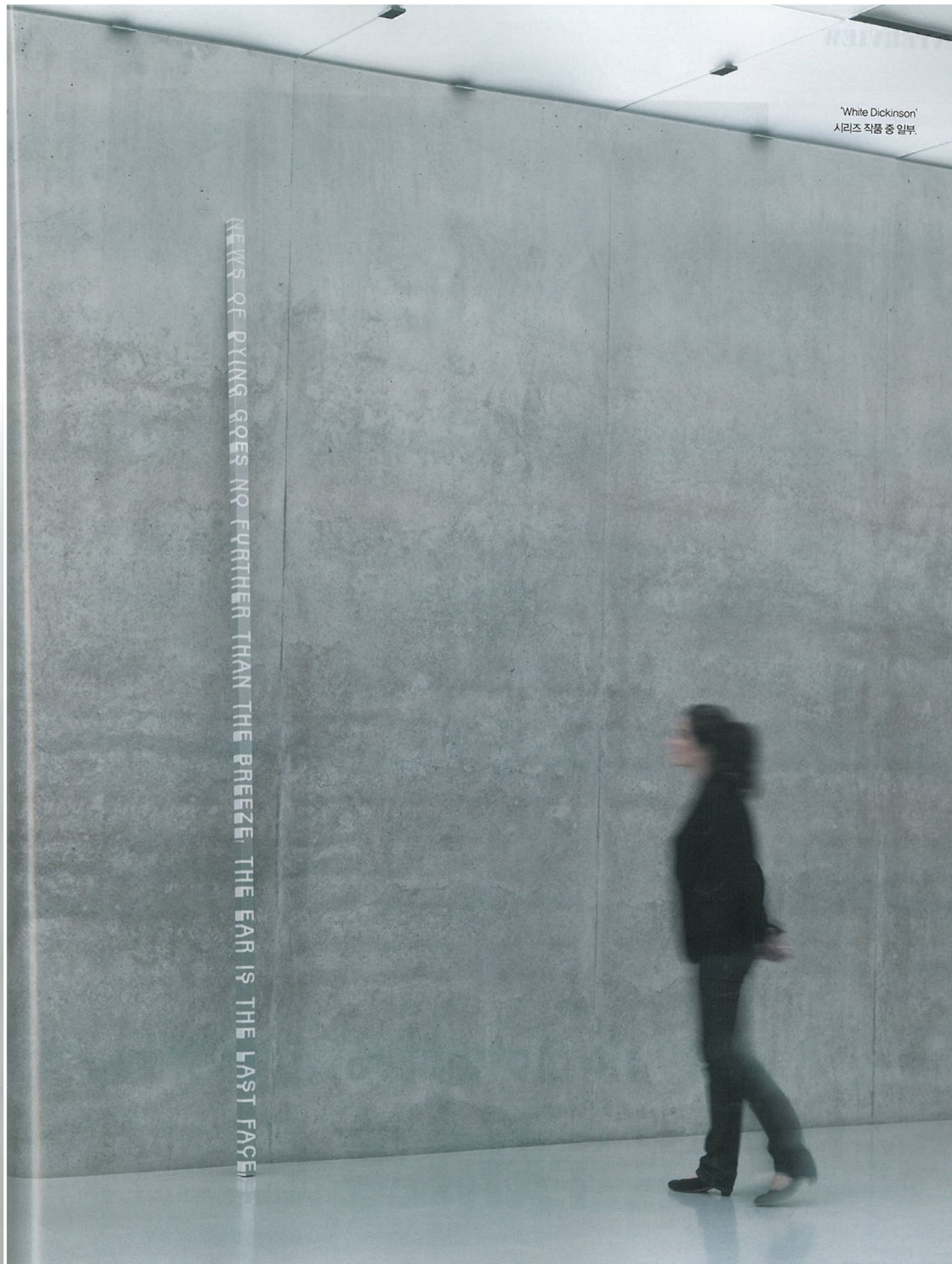
'Still Water(The River Thames)' 시리즈 작품 중 일부.

물과 로니 혼, 끝은 열려 있다

로니 혼의 작업 세계를 글로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그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평론가 줄리 울트가 로니 혼에게 작품을 설명해달라고 했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조각 작품을 설명해달라는 말입니까?” 어쩌면 작가는 관객들이 자신의 작품을 보고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기를 바라는지도 모른다. 지식은 묘한 것이어서 때로 경험을 방해하기도 하니까. “나는 모든 작품이 그 자체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시장에 들어와서 경험하고 나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 누구든 분명한 물리적 실체가 눈앞에 있으면 대상에 대한 정보가 많은 적든 간에 무언가를 해석하려 한다. 부분적이거나 과도한 지식보다는 아예 없는 편이 더 낫다.” 언어는 불충분하며 과대 포장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작가는 동시에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로니 혼이 작업의 정신적 동반자로 삼았던 미국 시인 에밀리 디킨슨의 말을 빌려보자. “세상에 내가 아는 것 중에 단어만큼 강력한 것은 없다. 가끔 나는 단어 하나를 써놓고 들여다보는데, 계속 보고 있으면 단어에서 빛이 나기 시작한다.” 로니 혼의 또 다른 대표작 'White Dickinson' 시리즈는 마치 이 문장을 형상화한 듯 보인다. 디킨슨의 시에서 글을 가져와 알루미늄 막대기에 흰 글씨로 쓴 작품은 앞에서 보면 글자만 보이지만 옆이나 뒤에서 보면 바코드같이 기계적이면서도 입체적인 느낌을 주는 조각의 형태를 띤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감상'과 '읽기'를 혼용하고 있다.

템스 강의 수면을 촬영한 'Still Water' 시리즈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어둡고 시간에 따라 전혀 다른 색으로 보이는 템스 강의 표면을 촬영한 이 사진들은 각주 형식으로 물에 관계된 짧은 글을 싣고 있다. 에밀리 디킨슨의 시구를 비롯해 소설의 일부, 템스 강에 관해 작가가 직접 쓴 글 등에서 발췌한 800개 이상의 문구다. 이러한 구성은 로니 혼이 작업을 통해 일관되게 말해온 주제를 잘 보여준다. 세계의 근간을 이루는 소재인 물은 어떻게든 변할 수 있는 무한한 가변성을 지니고 있으며 인간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는 박제된 새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흐르는 상태에 놓여 있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그것이 바로 삶이다. ▣

로니 혼의 작업 세계를 글로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그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평론가 줄리 울트가 로니 혼에게 작품을 설명해달라고 했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조각 작품을 설명해달라는 말입니까?” 어쩌면 작가는 관객들이 자신의 작품을 보고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기를 바라는지도 모른다. 지식은 묘한 것이어서 때로 경험을 방해하기도 하니까. “나는 모든 작품이 그 자체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시장에 들어와서 경험하고 나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 누구든 분명한 물리적 실체가 눈앞에 있으면 대상에 대한 정보가 많은 적든 간에 무언가를 해석하려 한다. 부분적이거나 과도한 지식보다는 아예 없는 편이 더 낫다.” 언어는 불충분하며 과대 포장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작가는 동시에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로니 혼이 작업의 정신적 동반자로 삼았던 미국 시인 에밀리 디킨슨의 말을 빌려보자. “세상에 내가 아는 것 중에 단어만큼 강력한 것은 없다. 가끔 나는 단어 하나를 써놓고 들여다보는데, 계속 보고 있으면 단어에서 빛이 나기 시작한다.” 로니 혼의 또 다른 대표작 'White Dickinson' 시리즈는 마치 이 문장을 형상화한 듯 보인다. 디킨슨의 시에서 글을 가져와 알루미늄 막대기에 흰 글씨로 쓴 작품은 앞에서 보면 글자만 보이지만 옆이나 뒤에서 보면 바코드같이 기계적이면서도 입체적인 느낌을 주는 조각의 형태를 띤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감상'과 '읽기'를 혼용하고 있다.



'White Dickinson' 시리즈 작품 중 일부.